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약 5천8백여 개의 시내버스정류소가 있고 버스정류소에는 가로수, 가로등, 우체통, 신문 배포대, 쓰레기통, 소화전, 자전거 거치대뿐만 아니라 교통표지판, 정류장 안내표지판, 신호등, 교통신호 제어기, 전신주, 공중전화부스, 화단 등 수많은 시설물들이 아무렇게나 늘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설물들은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정류소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 장애물들을 피하느라 차도까지 나와서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 하는 장소에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물이 있으면 시민들은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버스정류소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흉기’ 나 다름이 없고 야간이나 눈, 비 등 악천후 시에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버스도 차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과 시설물들을 피하기 위해 정류소에서 훨씬 못 미친 곳에서 정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장애물을 피하느라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면 이는 곧 교통체증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사고와 교통체증을 시민의 부주의와 버스기사의 규정 미준수를 탓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제28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시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시장은 가칭 ‘버스정류소 시설물 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일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물 정비 TF팀’을 통한 승하차 안전 방해 시설물 정비와 아울러 가로수 등 안전 방해 시설물 신규 설치를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된 제정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